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당시 대한민국! 세종과 국민이 나서

보도시점 2024. 6. 20.(목) 11:00 < 6.20.(목) 석간 > 배포 2024. 6. 19.(수)

평년보다 더운 여름, 전력수급은 안정적

- 폭염·태풍, 발전기 고장 등 최악의 상황에도 안정적 관리 추진

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예상되며 충분한 공급능력과 비상예비자원 확보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.

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92.3GW로 더웠던 작년 여름(93.6GW)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, 최대전력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. 다만, 산업부는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수요가 높은 가운데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되어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97.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.

전력 당국은 올여름 최대 104.2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한 상태다. 지난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2호기를 비롯하여 총 21기의 원전을 가동할 전망이며, 태양광 설비*도 작년보다 2.7GW 늘어 전력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
* '24.8월 예측치 : 시장내 9.1GW(전년대비 +0.9GW), PPA 16.2GW(+1.3GW), 자가용 5.3GW(+0.5GW)

다만, 전력 당국은 발전기 고장, 이른 폭염 등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수급관리 대책을 사전에 준비하였다. 우선 예비력이 부족해지면 울산GPS복합, 통영천연가스 등 새로 건설한 발전기의 시운전을 투입하고, 그래도 예비력이 충분치 않으면 수요자원(DR), 석탄발전기 출력 상향운전, 전압 하향조정 등 최대 7.2GW의 비상예비자원을 가동할 계획이다.

한편,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수요관리도 병행한다. 공공기관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7월 3주부터 8월 3주까지는 피크시간대(16시 30분~ 17시 30분)에 냉방기를 순차운휴(30분씩 정지)하고, 예비력이 5.5GW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실내온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. 아울러 6.16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취약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(세대 평균 4.3만 원→5.3만 원), 고효율기기 보급 규모 확대 등 냉방비 부담 완화 지원 정책도 세심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. 이와 함께 월 10만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주택용 전기 소비자와 일정 증빙을 갖춘 소상공인·뿌리기업에 대해 7~9월분 전기요금을 2~6개월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.

전력당국은 6.24일부터 9.6일까지를 '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'으로 정해 유관기관과 '수급대책 상황실'을 운영하면서 실시간 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시 예비자원을 즉시 투입하여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간다.

담당부서	전력정책관 전력산업정책과	책임자	과 장	문양택 (044-203-3880)
		담당자	사무관	손민경 (044-203-388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 「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」 주요 내용

1. 전력수급 전망

□ (수요) 금년 기온은 **평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**되나 휴가분산효과도 나타나 **전년 최대수요**(93.6GW, '23.8.7)와 **유사할 전망**

※ 하계피크 실적 : '20년 89.1GW, '21년 91.1GW, '22년 93.0GW, '23년 93.6GW(최고)

○ 최대수요는 **8월 2주 평일 17시경 92.3~97.2GW*** **수준으로 예상**

* '18.8월 태풍 '룸비아' 기상조건 가정 : 남부는 흐리고 중부는 맑아 태양광↓ & 냉방수요↑

□ (공급) **전년 피크 공급능력**(104.3GW)**과 유사한 최대 104.2GW**

□ (예비력) **8월 2주 상한전망 시현시 7.0GW, 기준전망시 11.9GW 전망**

2. 전력수급 대책

□ (추가자원) **신규 건설 발전기 시운전*** 및 최대 7.2GW의 **추가 예비자원****을 적시 활용

* 울산GPS복합(1,227㎿), 통영천연가스(1,012㎿) 삼척블루#2(1,050㎿), 대구열병합(207㎿) 등
** 석탄발전 출력상향 → 신뢰성 수요감축(DR) → 전압 하향조정 → 긴급 수요조정 등

□ (수요관리) **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합리화 방안*** 추진, **민간 인센티브 활용**(에너지캐시백) 등 여름철 에너지 절약 유도

* 7.3주~8.3주 냉방기기 순차운휴, 예비력 5.5GW 이하시 실내온도 기준 상향 등 추가조치

○ **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효율화 기기 지원사업***을 지속 확대하고 여름철(6~8월) **전기요금 지원****으로 냉방비 부담 완화**

* 저소득가구·복지시설 무상 냉방기기·LED 설치, 취약계층 고효율가전 구매 지원 등
**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더위민감계층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(평균 4.3→5.3만원), 사회적배려계층 전기요금인상분('23.1월, 5월) 유예기간 1년 연장(각 '25.1월, 5월까지)

□ (설비점검) 불시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방지하기위해 **설비 사전점검 및 보수·교체,** 위기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**복구체계 준비**

* 장관(6.21, 중부발전 서울복합), 2차관(6.25, 한전 신가평변환소) 등 현장점검 예정

◈ **6.24일~9.6일을 '전력수급 대책기간'으로 지정, "수급대책상황실" 운영**
올 여름철 국민생활에 불편 없도록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
* 산업부, 한전, 거래소,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